

【활기와 편안함의 양립을】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연간 약 2천만 명을 유치하는 이온몰 오카야마의 2014년 개장은 오카야마 중심 시가지에 전례없는 영향을 끼쳤고 오카야마 역 부근이라는 입지와 더불어 일대에 큰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한편 시청에서 이온몰 오카야마까지 북쪽으로 이어지는 시청길 (약 750m)은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 특히, 연말 연시나 주말 등의 성수기에는 이온몰 오카야마를 기점으로 시청 앞의 다이쿠 교차로를 초과할 정도의 대규모 교통체증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동차가 필수적인 오카야마에 있어서 시내 각처에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오카야마시로서는 이 이온몰 오카야마 앞 사거리(시모이시이 1쵸메 교차로)의 교통체증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높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와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청 길에서 오카야마 역 서쪽출구로 건너는 구름다리를 향해 북진 좌회전 하는 차량이 한 번의 신호로 6에서 7대정도 밖에 좌회전이 안되는 상태에서 새로 좌회전 차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좌회전 가능 시간을 대폭 늘여 약 3배의 20대 정도의 좌회전 차량을 가능하게.

(2) 이온몰 오카야마에서 현청 거리 맞은편 횡단보도에 차가 정체되는 위험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이전 등을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 할 수 있는 상태로.

※자세한 것은 아래 주소(전부 소문자 입력)에서 사업 개요를 참조 하십시오.

<http://www.city.okayama.jp/contents/000313247.pdf>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검토 중에는 즉시 오카야마 현경과 과제를 공유해, 이온몰 오카야마에서 흔쾌히 부지를 무상 제공받는 등 3자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시다만, 처음 희망했던 연말 연시의 정체시기에는 맞지 않는 내년 초의 공사 착수로 3월 말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차로 개량 공사는 3자 각각이 시행하는 연말 연시의 교통체제 방책에 맞춰 시청길 교통체제 완와와 통행의 안전성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후도 활기와 편리함의 양면성이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효과적인 교통체제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